

전체사(整體史) 관점에서 본 석인(石印) 기술의 중국 내 200년 전파사와 연구 경향의 변천 (1826-2026)

허정파(소주대학 미디어학원)

초록

1826년 영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석인쇄술을 중국어 문화권에 도입한 이래, 이 기술은 중국에서 200년간 전파되어 왔으며, 석인쇄 연구 또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존 석인쇄사 연구에는 시공간과 내용 형식의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시간적으로는 200년 석인쇄사 중 100년의 연구가 유실되었고, 공간적으로는 상하이 석인쇄사 연구가 다른 지역을 크게 초과하며, 내용적으로는 도상 텍스트가 일부 다루어졌으나 문자 텍스트에 훨씬 못 미치고, 형식적으로는 석인쇄 서적과 신문의 연구가 판화 도상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사의 관점으로 중국 석인쇄술 전파사의 각 영역을 재정리하여, 사료의 전체적 기획, 연구 경로 전망, 시대 구분 재설정 및 통사 저술을 제안해야 한다.

주제어: 석인쇄술, 전체사, 물질성, 시대 구분

서론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학 연구는 미디어사의 관점을 가져야만 산업의 흥망성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나, 미디어 자체의 특질로부터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를 재고찰할 수 있다.

179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알로이스 제네펠더(Aloys Senefelder)가 석인

쇄술을 발명하여 평판인쇄 시대를 열었다. 1819년에는 『Senefelder on Lithography』(석인쇄 상해)를 출판하여 석인쇄 기법과 발명 과정을 설명했다. 유럽 자본주의 세력의 전 지구적 확장과 함께 석인쇄술도 빠르게 동방으로 전파되었다. 1826년 5월 1일,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영국에서 광저우로 돌아올 때 석인쇄기 한 대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사적에 기재된 중국 내 최초의 석인쇄기이다. 비록 개항 전이라는 이유로 모리슨은 곧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바타비아(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인쇄소를 설립하여 인쇄출판 사업을 전개했지만, 여전히 중국어 문화권 내에 있었으므로 1826년은 석인쇄가 중국에 전파된 원년으로 볼 수 있다.

1. 석인쇄술 연구의 역사적 경로

1.1 기술 경로: 인쇄공예학

광서 3년(1877년) 영국 선교사 존 프라이어(John Fryer)가 『격치휘편』에 「석판인도법」을 발표하여 석인쇄술을 소개한 이후, 57년이 지나서야 석인쇄 관련 첫 학술 저작이 출판되었다. 민국 23년(1934년) 허성내(賀聖籟)와 라이언위(賴彥于)의 『근대 인쇄술』은 석인쇄 연구의 선구적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 후 인쇄는 국민직업교육체계의 전문 학과가 되었다. 1958년 문화부가 문화학원 인쇄공예과를 설립했고, 이후 베이징인쇄학원으로 발전했다. 상하이에서는 1952년 상하이 화동군정위원회 신문출판국이 상하이인쇄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2 운영 경로: 출판학

구출판인과 도서관인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직업적 관점을 석인쇄 연구에 도입하여, 석인쇄 연구의 출판인쇄학 경로를 형성했다. 장징루(張靜廬)는 민국 시기 여러 출판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근대출판사료』를 편찬했다. 장슈민(張秀民)은 베이징도서관에서 40년간 근무하며 『중국인쇄사』를 저술했다.

1.3 내용 경로: 석인쇄 출판물

도서관 학자들은 서목문헌학의 경로로 문헌을 정리했다. 『점석재화보』는 가장 먼저 주목받아 개별 연구 영역을 형성했다. 천평위안(陳平原)의 『점석재화보선』과 『도상만청』이 『점석재화보』 연구를 학계의 시야로 가져왔다.

1.4 산업 경로: 문화사와 경제사

20세기 하반기 이래 국제 역사학계는 사회사에서 문화사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미국 학자 크리스토퍼 리드(Christopher A. Reed)의 『구텐베르크 인 상하이』(Gutenberg in Shanghai)는 상하이 근대 석인쇄사를 탐구했다. 중국 역사학자들도 이 연구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2. 전체사 관점의 석인쇄 연구

현대 사학의 창시자 란케(Leopold von Ranke) 이후, 아날학파가 역사학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제2세대 지도자 브로델(Fernand Braudel)이 '전체사'(총체사) 개념을 정식으로 제시했다. 전체사 관점에서 석인쇄를 보면, 그 전체성은 다음과 같다:

2.1 석인쇄는 기술이다

근대에 병존했던 세 가지 주류 인쇄술인 목판인쇄, 석판인쇄, 연활자인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석판인쇄는 "유수불상용(油水不相容)" 원리를 이용한 화학인쇄이다.

2.2 석인쇄는 산업이다

인쇄업 투자 변화, 기술 노선 경쟁, 인쇄소 입지 선정, 엔지니어와 기술 노동자 고용, 업계 협회 조직, 생산경영 기초시설, 시장 발행 기법 등의 문제를 직면한다.

2.3 석인쇄는 문화이다

문사(文史) 경로, 시각 연구, 예술 평론, 독서 연구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다.

2.4 석인쇄는 정치이다

석인쇄와 정치 사조의 관계, 서로 다른 정치 주체의 석인쇄 선전, 전쟁 중 석인쇄 전개 등이 포함된다.

2.5 석인쇄는 시간과 공간이다

200년의 시간적 전개와 중국 내 다양한 지역, 중국어 문화권, 그리고 구미와의 비교 연구를 포괄한다.

3. 석인쇄술 200년 전파사의 시대 구분

전체사 관점에서 석인쇄술의 중국어 문화권 내 전파는 "기술-산업-예술"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6개 시기로 세분화된다:

1826-1843년, 기술 검증기: 바타비아 인쇄소의 석인쇄 생산

1843-1872년, 기술 업그레이드기: 목해서관, 토산만 등 선교사 석인쇄

1872-1905년, 석인쇄업 황금기: 대량의 전통 중국 서국이 석인쇄에 투입

1905-1956년, 석인쇄업 완성과 다원 인쇄 발전기: 업계 조직, 서국 건설, 기술 확장 지속

1956-1988년, 국영 인쇄와 석판화 전문 건설기: 근대 석인쇄 서국이 국영 인쇄공장으로 전환

1988년-현재, 석판화 예술 창작기: 레이저 조판 기술 발명 후 석인쇄는 도태되었으나 석판화는 예술로 존속

4. 연구의 미래 방향

4.1 석인쇄 사료의 재정리

석인쇄 서적, 석인쇄 도화, 석판화 등 다양한 석인쇄 제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근대 상하이 이외 지역, 특히 중국어 문화권의 석인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4.2 석인쇄사 연구 경로의 재검토

100여 년의 석인쇄사 연구는 기술에서 텍스트로의 발전 맥락을 보여준다. 미디어 학 관점은 독자의 독특한 미디어 경험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해석 관점의 변화는 "텍스트 중심주의"에서 "물질성"으로의 전이를 반영한다.

4.3 통사 저작의 완성

현재 상하이 석인쇄술 발전에 관한 여러 논저가 있으나, 중국 전체나 중국어 문화권을 포괄하는 석인쇄 통사는 아직 없다. 이러한 통사를 완성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미디어와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전체사의 관점으로 석인쇄술의 중국 내 200년 전파사를 재검토하면, 한 시대 한 지역, 한 산업, 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산업 기술로서 석인쇄는 필연적으로 산업 생태 지위의 경쟁에 직면했고, 목판인쇄를 물리치고 저비용 도문 제작의 생태 지위를 차지했으나, 더욱 효율적인 현대 인쇄술과의 경쟁에서 대체되었다. 이는 기술 진화의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나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평가 메커니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진술이 출현한 후에도 회화는 여전히 존재하듯이, 산업으로서의 석인쇄술은 대체되었지만 예술 창작으로서의 석판화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석인쇄는 단순한 석인쇄 그 이상이다.